

## 국의 아동 증언 분야의 학술 연구와 현장 실무의 호혜적 관계에 대한 고찰

이 승 진<sup>†</sup>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수십 년에 걸쳐 국외 아동 증언 분야의 학술 연구들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기억 발달 특성과 회상 보고 역량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수사면담의 바람직한 구조와 형식에 관한 응용 연구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학문적 연구의 주요 결과들이 실제 아동 수사면담의 구성과 실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동 증언 분야의 국외 사례들 특히 NICHD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과 범정의 CCTV 활용을 중심으로 학술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우호적 협력 관계가 아동 수사면담의 질적 향상과 신뢰로운 아동 진술의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아동의 복지와 안녕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이 연루되는 심각한 범죄 사건들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학술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호혜적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아동 수사면담의 환경 개선 및 아동 진술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당면한 현실적 과제와 관련 후속 연구들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어 : 경험적 연구, 현장 실무, NICHD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 CCTV, 아동 증언

---

<sup>†</sup> 교신저자: 이승진,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Department of Psychology, CB#3270, Davie Hall, NC, 27514, USA  
E-mail: sjmagiclife@gmail.com

수십 년 전 미국심리학회에서는 인간의 ‘회복된 기억’과 관련하여 열띤 논쟁이 있었다.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정도의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억압된 기억이 성인이 되어 회복되는 경우가 치료적 맥락에서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랜 잠복기를 지나 회복되는 기억은 다양한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실증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회상 진술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 수사사건의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Loftus, 1993). 그러나 인간 기억의 순응적 특성을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치료적 맥락에서 회복된 기억은 치료사가 제공하는 암시적 정보들에 의해 재구성된 기억 혹은 허구적 기억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오랜 기간 전문적 훈련 및 경험을 갖춘 상담심리학자나 임상치료사들은 충격적인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의 일부나 전체의 회복은 심리치료 시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회복된 기억’에 대한 이와 같은 양극화된 논쟁을 조정하기 위해 기억 분야의 전문가들은 방대한 학술 연구들의 결과와 현장 실무자들의 견해 사이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열띤 논쟁에도 불구하고 학술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은 인간의 ‘회복된 기억’과 관련하여 수렴된 의견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학술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은 각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 결과나 실증적 증거들을 발표하는 것으로 회의는 종결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들 주장의 대립은 팽팽하게 지속되어 왔다(Brenneis, 1997).

인간의 ‘회복된 기억’에 관한 이와 같은 양극화된 논쟁이 아동 증언 분야의 학술 연구자

들과 아동 수사면담을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이 과거에 목격한 혹은 직접 경험한 범죄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뢰로운 진술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아동의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한 아동 수사면담프로토콜 개발과 그에 따른 올바른 시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학술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 개방적이고 활발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호혜적인 관계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술 연구자들은 실험실의 건조하고 단순한 환경이 갖는 한계를 직시하고 실제 아동 삶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적 특성들을 최대한 반영한 연구를 실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사회과학의 학문적 가치뿐만 아니라 성폭행, 신체 학대 등 아동이 연루되는 가혹한 범죄 사건들에 대한 법정의 정당한 판결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곧 궁극적으로 아동 삶의 복지와 안녕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학술 연구자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문가들, 수사경찰관, 사회복지사 등의 현장 실무자들은 아동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면담이 과학적인 구성과 바람직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아동의 회상 기억에 대한 폭넓은 학술 연구들의 결과와 실제 아동 수사면담의 현장 자료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폭넓은 학술 연구들의 결과가 실제 아동 수사면담 현장에 성공적으로 반영된국의 사례들 중에서 NICHD(미국국립아동인간 발달연구소)의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과 법정 CCTV 활용을 중심으로 학술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우호적 협력 관계가 아동 수사면담의 질적 향상과 신뢰로운 아동 진술의 확보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에 앞서 우선 아동 증언 분야의 학술 연구들이 갖는 가치와 그 한계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 학술적 아동 증언 연구의 가치 및 한계점 고찰

사회과학 방법론은 실험 설계 혹은 자료 조사에 대한 사전 계획, 변인 통제, 선행 이론에 바탕을 둔 가설 정립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과학적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한 반복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Zigler & Finn-Stevenson, 1999). 보편적으로 아동의 기억 수행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은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 혹은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 안의 한적한 교실이나 대학교 실험실과 같이 통제 가능한 장소에서 연구를 실시한다. 아동 증언을 주제로 하는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엄격한 변인 통제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연령에 따른 아동의 기억 수행 능력과 피압성성의 수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반복 검증하고 아동 기억과 관련된 학문적 이론들을 수정 보완 및 발전시키고자 함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아동들이 심각한 폭행 혹은 절도사건을 목격하거나 성폭행 혹은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등 흉악한 범죄 사건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 수사면담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심각한 학대나 성폭력을 아동이 실제로 경험

하였거나 목격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실제 범죄 사건들과 유사한 강도의 부적 정서가 유발될 수 있는 사건들을 학술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학술 연구에서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사건의 특성들은 부정적 정서 수준, 사건의 지속 시간, 사건의 반복성, 가해자와의 관계 등의 맥락에서 실제 범죄 사건과는 명백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또한 면담 질문의 구성과 질문 횟수 등에 있어서도 학술 연구에서의 아동 기억 평가와 실제 수사면담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학술 연구에서는 아동이 특정 사건을 경험한 후 즉시 혹은 다소 짧은 시일이 지난 후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아동이 사건을 경험한 후 몇 개월 혹은 심지어 몇 년이 지나 수사면담이 실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Walsh, Lippert, Cross, Maurice, & Davison, 2008). 또한 학술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억이 한 두 번의 수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아동 수사면담의 경우 사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보고를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요구하게 된다(Malloy, Lyon, & Quas, 2007). 이와 같은 차이들로 인해 아동의 기억 회상과 관련된 학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제 수사면담 현장에서 아동이 목격한 혹은 경험한 사건에 대한 진술 능력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Lyon, 1999). 따라서 학문적 연구들은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맥락에서 완벽한 연구 설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대표성 부분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는 숙제로 남겨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아동 수사면담의 구조와 환경을 최대한 반

영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외에서는 아동 증언 분야의 학술 연구들이 선행 연구의 반복 검증과 현존하는 아동 기억 이론의 보완 및 발전에 관한 주제보다는 현장의 실무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사면담의 구성 요건과 아동 친환경적 면담 조성과 같은 응용적 연구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응용적 연구들은 연구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 모두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나 현존의 학술 이론들이 현장 실무에 성공적으로 반영되는 경우 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향상된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구의 의미가 상실되기 보다는 연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하였던 현실적 난관들에 대한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과거에는 경험적 연구가 지닌 과학적 논리성과 변인 통제성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응용적 연구가 현실적 측면들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과학적 연구의 기본 규칙들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면서 응용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Banaji & Crowder, 1989). 그러나 20여 년 전부터 학술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은 과학적 방법론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면서 실제 아동 수사면담의 구성과 환경적 특성들을 심도 있게 반영한 창의적인 연구들을 실시해 왔다(Gathercole & Collins, 1992).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동 증언과 관련된 기초 연구들이 아동 기억 이론의 발전과 선행 연구 결과의 반복 검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응용 연구들은 기존 아동 수사면담의 프로토콜 개선과 아동 진술의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아동 증언 분야에서 응용 연구를 시도하는 연구자들은 정부, 경찰서 혹

은 법조계 실무자들의 전문적 식견과 통찰, 그리고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연구 설계에서부터 결과 해석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아동 진술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에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국외에서는 아동 증언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응용적 연구 결과들이 경찰서 및 법정에서 아동 친환경적 수사면담 제도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Groark & McCall, 2005). 연구 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성학대 피해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면담에서 면담자의 정서적 지지 제공, 적절한 라포 형성 방법, 아동과 친근한 중재인의 배석 여부, CCTV 사용 등과 관련된 요소들이 아동 진술의 구체성과 신뢰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이처럼 아동 증언 분야의 기초 연구들과 응용 연구들 모두는 바람직한 아동 수사면담의 실시와 신뢰로운 아동 진술의 확보에 요구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술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은 아동의 기억 수행과 관련된 기초 연구들뿐만 아니라 응용 연구가 제안하는 주요 함의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아동 증언 분야의 기초 학술 연구들은 과학적 연구의 객관성과 통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반면 연구 도구, 실험 환경, 피험자 아동의 선별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아동 증언 분야의 응용 연구들은 실제 아동 수사면담 맥락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절차상의 변인들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McCall & Green, 2004). 따라서 아동 증언과 관련된 이상적인 연구란 아동 기억과 관련된 인지 발달 이론뿐만 아니

라 실제 아동 수사면담의 구성 및 환경, 아동 범죄 사건들의 독특한 특성들이 다각적으로 고려된 연구일 것이다.

아동 기억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초 연구들과 응용 연구들이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여 연구 결과의 수렴적 타당도가 성립된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상반된 결론이 도출된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교 실험실과 같이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조사된 아동 기억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사건 경험 시 유발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아동의 기억 수행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oodman, Hirshman, Hepps, & Rudy, 1991).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건 경험 시 유발된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들은 아동의 기억 수행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uas, Bauer, & Boyce, 2004).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들이 도출되는 이유는 각 연구들마다 이용된 사건의 특성들이 다양하고 피험자 아동의 연령 및 인지, 사회-정서적 개인차 변인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기초 연구들이 다양한 혼외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응용 연구들이 변인 통제나 무선 할당과 같은 과학적 방법론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증언을 주제로 연구 가설 및 연구 설계를 정립할 때는 과학적 연구 방법론의 기본 원칙들과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도가 보다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아동의 기억과 관련된 학술 이론들과 성폭행이나 학대 등 실제 범죄 사건들의 특성, 아동 수사면담의 구성적, 환경적 특성들 중 어느 한쪽의 특성이 과장되거나 간과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술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상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학술적 아동 증언 연구의 현장 적용 가능성 고찰

아동 증언과 관련된 학술 연구 결과들을 실제 아동 수사면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학술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사건을 아동이 경험하고 그에 대한 아동의 회상 수준을 바탕으로 실제 수사사건에 대한 아동 진술의 정확도를 신뢰롭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시된 선행 연구들의 생태학적 타당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피암시성 수준을 살펴 본 선행 연구들은 3-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고 각 연령에 따라 아동의 피암시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Ceci, Huffman, Smith, & Loftus, 1994 a, b; Leichtman & Ceci, 1995). 구체적으로 Leichtman과 Ceci(1995)는 ‘샘스톤의 갑작스런 방문’을 아동의 기억 사건으로 제공하였고 연구 결과, 샘스톤에 대한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한 아동들은 이후 기억 면담에서 ‘샘스톤’의 특정 행동들을 자신이 직접 본 것으로 착각하는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4세 아동의 경우, 전체 참여 아동의 40% 이상이 샘스톤의 특정 행동들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였으나 5-6세 아동의 경우 단지 10% 정도가 직접 본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들의 주요 목적은 연령에 따른 아동의 피암시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사면담을 받는 아동들의 평균 연령은 미국의 경우 13세, 영국의 경우 10-14

세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듯이(Davies & Noon, 1991) 실제 범죄 사건에 연루된 아동의 평균 연령은 학술 연구들에 참여한 피험자 아동의 연령보다 훨씬 높다. 결국 학술 연구들이 제시하는 아동의 피암시성 수준이 실제 범죄 사건을 경험한 10세 이상의 취학 아동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Lyon,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위 맥락에 적용해 보면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세련된 의사소통의 기술을 갖추게 되고 따라서 경험한 사건에 대한 회상 보고의 양과 회상된 정보의 구체성도 증가한다는 증거 자료를 학술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학 전 아동들은 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위 인지 및 언어적 능력이 여전히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들의 특성, 그와 같은 정보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인지적, 의사소통적 기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결국 현장의 실무자는 다양한 연령에 따른 아동의 인지 발달적 한계와 면담자의 질문에 따른 응답의 편향성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술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회상 보고의 역량, 질문 형태에 따른 이해 정도, 피암시성 수준 등과 관련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Leichtman과 Ceci(1995)의 연구는 어린 아동들이 직접 보지 않은 행동 혹은 상황적 정보들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구체적인 서술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취학 전 아동들의 피암시성 수준과 면담자의 오정보에 편향하는 아동 기억의 순응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린 아동의 경우 실제 수사면담이 요구되는 사건 즉,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범죄 사건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예: 성에 대한 기초 지식, 성폭력 내면의 역학 등)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동이 성폭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경우 성범죄에 대한 상상이나 환상만을 바탕으로 거짓된 진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Davies, 1996). 또한 Huffman, Crossman과 Ceci(1997)는 2년 전 Ceci 연구에(1994 a, b) 참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재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샘스톤’의 부적절한 행동들을 직접 보았다는 아동의 회상 오류는 22%에서 13%로 감소되었다. 반면 아동이 실제로 경험한 사건에 대한 회상 보고의 정확성은 77%로 여전히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거나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으나 아동이 직접 경험한 사건에 대한 정보는 장기간 기억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에도 정확하게 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술 연구 결과들이 제시하는 아동의 피암시성 수준에 의존하여 실제 범죄 사건들에 대한 아동의 진술 역량과 진술의 정확도를 예측하는 것은 신뢰롭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아동 증언 분야의 학술 연구들은 중립적 정서의 일회적 사건들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실제 아동 성폭력 및 신체 학대와 같은 범죄 사건들은 중립적 정서의 사건이 아닌 부정적 정서, 즉 높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며 동일한 가해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들이 많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동일 사건을 반복적으로 경험

한 아동은 면담자의 암시적 정보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 & Powell, 2001). 이는 정보에의 반복적 노출은 주위 환경과 사건의 주요 요점적 정보들에 대해 보다 견고하고 응집력 있는 기억을 형성하여 이후 사건과 무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면담자의 유도적 질문에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Roberts & Powell, 2001).

요약하면,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사건들과 실제 아동이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범죄 사건들은 사건과 관련된 본질적 특성들, 예를 들어 사건이 유발하는 부적 정서의 강도, 사건 발생 빈도, 혐의자와 아동의 관계 등에서부터 명백한 차이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기억 수행과 관련된 학술 연구들의 가치와 필요성이 부각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학술 연구들이 아동 회상 기억 역량의 한계를 증명하기 보다는 아동 회상 기억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여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질문 형태로 수사면담이 진행되고 획득된 아동 진술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안 마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 기억과 관련된 학술 연구들의 결과는 수사면담 시 신뢰로운 아동 진술 확보를 위해 현장 실무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아동 증언과 관련된 학술 연구들이 현장 실무에 기여한 사례들

아동 증언과 관련된 학술 연구에서 고려되는 아동의 연령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아동을 일컫는다. 유엔 총회는 아동 진술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법률적 절차 개선과 그 함의를 지지하는 강령(2009)을 제안하였으며, 유엔 총회의 아동권리협약(1990)과 유럽의회의 성학 대아동보호강령(2007)은 취학 전 아동의 인지적 한계를 고려하여 법적 절차에서 합당한 보호와 배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보호강령에 바탕을 둔 학술 연구들 중에서 실제 아동 수사면담의 구성과 환경에 기여한 대표적 사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아동 수사면담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NICHD의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볼도록 하겠다.

### NICHD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에 대한 고찰

NICHD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아동이 자발적으로 회상할 수 있도록 선택형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위주로 수사면담이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Lamb et al., 2008). 이 프로토콜은 아동 증언과 관련된 방대한 학술 연구들과 아동 수사면담 현장의 실질적 요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발된 면담 프로토콜로 아동 수사면담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절차들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아동 수사면담의 시작 단계는 면담자가 아동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수사면담의 주요 목적과 수사면담의 기본 규칙들(예: 면담자의 질문에 ‘모른다’는 응답이 가능하며 면담자가 오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아동은 그 정보의 수정을 항시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아동에

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본 규칙은 아동의 언어 발달과 관련된 학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이 수사사건에 대해 면담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면담자는 어른이기 때문에 항상 더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신뢰하는 경우 아동은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Lamb, Orbach, Warren, Esplin, & Hershkowitz, 2007). 또한 어린 아동일수록 면담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의 의미를 재확인하기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예: '네/아니오' 형태) 응답하려는 경향이 있다(Waterman, Blades, & Spencer, 2004). 게다가 아동은 면담자가 특정 응답을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성인에게 순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가 자극되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바와 상반된 정보에도 수긍하는 경향이 있다(Melnyk, Crossman, & Scullin, 2007). 이와 같은 아동의 진술 특성 이외에도 본격적인 수사면담에 앞서 아동에게 사실적 정보만을 보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사실과 거짓의 차이와 관련된 '진실 유도 훈련'이 제공되는 경우 아동의 진술 정확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한 연구들이 있다(Talwar, Lee, Bala, & Lindsay, 2002). 이와 같은 학술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NICHD 아동 수사면담의 기본 규칙들이 정립되었다.

최초의 아동 수사면담 지침은 1998년 이스라엘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시 면담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면담의 규칙과 절차들을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장 자료에 의하면 오래 기간 면담을 수행한 면담 전문가들은 자신의 면담 습관에

고착되어 새롭게 제안된 이 면담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곧 새로운 면담 지침이 면담 현장에 성공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과 돈독한 신념 및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는 호혜적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Orbach, Hershkowitz, Lamb, Esplin, & Horowitz, 2000). 이 후 연령에 따른 정보의 부호화, 저장, 인출의 특성, 의사소통 능력, 피암시성 수준 등 아동의 언어 및 기억과 관련된 심리학 분야의 학술 연구들과 법정에서 요구하는 아동 진술의 정보적 형태, 아동 연령에 적합한 질문의 형태, 면담자의 태도, 수사면담의 횟수, 수사사건의 본질적 특성 등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적 의견들이 수렴되어 NICHD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이 탄생하였다. 국외에서는 현재 이 수사면담 프로토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학술 연구들과 현장 자료 조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NICHD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이 아동 진술의 정확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NICHD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에 따른 면담은 다른 면담 절차들보다 면담자가 유도적이고 암시적 정보를 제공하게 될 확률이 낮고 아동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오정보를 진술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Lamb, Orbach, Sternberg, Aldridge, Pearson, Stewart, Esplin, & Bowler, 2009). 그러나 NICHD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이 아동 진술의 신뢰성 향상에 미치는 이와 같은 긍정적 영향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 현장 자료 조사에 의하면 NICHD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에 따른 자기 감찰(self-monitoring) 과정 혹은 동료 피드백 과정을



통해 아동 수사면담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으나 면담자를 위한 전문 면담 훈련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동 수사면담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짧은 시일 이내에 다시 고질적인 문제를 다분히 포함하는 이전의 면담 방식으로 쉽게 퇴보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amb, Sternberg, Orbach, Esplin, & Mitchell, 2002). 이는 각 면담자의 고착된 면담 습관 개선이 얼마나 어려운지 더불어 지속적인 면담자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도 제공한다.

국외에서는 아동 성폭력 및 학대 사건을 다루는 아동 심리학자, 변호사, 사회복지사, 경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아동 수사면담의 질적 향상과 신뢰로운 아동 진술 확보를 위해 수사면담자들을 위한 전문 훈련과 교육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Katz & Hershkowitz, 2010). 이와 같은 수사면담자 훈련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 수사면담을 감독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전문 훈련가를 비롯, 관련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실무자들의 제한된 업무 시간과 사회적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위해서 아동 수사면담프로토콜의 효과성 검증과 면담자 훈련 및 면담 피드백의 체계적인 구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신뢰로운 아동 진술 확보를 위한 CCTV 사용에 대한 고찰

국외 특히 영미권에서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 친화적 면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학술 연구자 및 현장 실무자들은 활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이루

어왔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아동의 법정 진술에 대한 법률적 제도들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보호하고 진술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아동의 진술 환경과 관련하여 공개된 법정이나 비공개된 장소에서 아동의 진술을 허락하는 CCTV 활용 제도는 법률적 절차가 유도할 수 있는 불안과 긴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 진술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 바 있다(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실제로 주위 환경적 요인들에 매우 민감한 어린 아동들이 회상 진술을 위해 직접 법정에서 출석하는 경우 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ywitz & Nathanson, 1993). 또한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상황, 공개된 법정에서 회상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상황, 변호사의 반대신문을 겪어야 하는 상황 등은 아동에게 이차적인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제공할 수 있다(Davies & Noon, 1993).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술 연구들을 통해 일관성 있게 검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 아동들은 성인에 비해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기억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한다(Bjorklund, 2005). 이는 낮은 면담 상황이 유발하는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정보의 인출’이라는 인지적 과정에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이 자신의 불안한 정서를 처리하는 데 인지적 자원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인출량은 감소한다(Quas et al., 2004). 또한 어린 아동들은 법정에서 요구하는 특정 규칙이나 정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확

하게 기억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Cordon, Saetermoe, & Goodman, 2005).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수사면담시 아동 친화경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성학대 피해자인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수사면담시 면담자의 정서적 지지 제공, 충분한 라포 형성, 아동과 친근한 중재자의 배석, CCTV 활용 등은 아동 진술의 정확성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Lamb et al., 2008).

영미권의 아동보호위원회에서는 아동 친화경적인 수사면담 실시에 대한 시도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 아동의 진술이 정보적 불충분으로 수사사건이 미해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영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의 입법부에서는 아동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진술 확보를 위한 법률적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Spencer & Flin, 1993). 그 결과 비공개된 장소에서 아동 진술을 가능케 하는 CCTV 도입이 제안되었고 이를 영국에서는 ‘생중계(live link)’ 제도라고 명명하였다. 실제로 CCTV의 사용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나 ‘피의자는 고소인을 직면할 권리’인 미국 헌법의 6조 조항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였다(Hall & Sales, 2008). 따라서 미국에서는 판사와 변호사들만 참석된 곳에서 아동이 반대신문에 응답하고 법정의 배심원들에게는 그 과정이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달리 영국에서는 비공개된 회의실에서 아동이 서기나 사회복지사와 함께 배석하여 수사면담이 진행되고 그 모든 과정을 CCTV를 통해 법정에서 공개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판사나 변호사가 하는 질문을 아동이 법정 밖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도 법정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생중계 형식이다. 이 방식은 법정의 경직되고 위협적인 환경과 법정에서 착석해 있는 낯선 사람들을 아동이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아동이 진술하는 동안 피의자의 시선과 마주치지 않도록 CCTV 카메라의 위치 조절을 허용하고 있다(Hall & Sales, 2008). 이와 같은 생중계 형식은 호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Cashmore, 2002; Davics, 1999) 특히 영국에서는 아동 성폭력 및 신체 학대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생중계 방식을 의무적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Cashmore, 2002). 물론 영국에서도 생중계 방식을 의무적으로 채택하기 보다는 아동이 피의자와의 대면을 특별히 두려워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법정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영국에서 생중계 방식의 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Hall & Sales, 2008). 다소 오래된 연구이긴 하지만 생중계 방식이 실제로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Davies & Noon, 1991), 현장 자료 조사에 의하면 생중계 방식을 통한 아동 진술의 90% 정도가 법정에서 실증적 증거로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Hamlyn, Phelps, Turtle, & Satter, 2004). 한편, 스코틀랜드에서 실시된 공개된 법정에서의 아동 진술과 생중계 방식을 통한 아동 진술을 비교 평가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은 생중계 방식을 통해 진술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불안 수준을 보이며, 판사 및 변호사의 질문들을 더 잘 이해하고, 보다 더 솔직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lin, Bull, Boon, & Knox, 1990). 이와 달리 생

중계를 통한 아동 진술과 공개된 법정에서의 아동 진술 사이의 그 어떤 특성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자료도 있다 (Murray, 1995). 비록 이 조사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아동 진술과 생중계 방식을 통한 아동 진술의 정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진술 종료 후 아동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면 전체 응답 아동의 73%가 공개된 법정의 진술보다 생중계 방식을 통한 진술을 더 선호하였고, 무려 92%가 생중계 형식의 진술 방식에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결과로 호주의 현장 자료에서도 생중계를 통한 아동 진술과 공개된 법정에서 획득된 아동 진술의 정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이 요구된 아동의 경우 생중계를 통해 진술한 아동보다 높은 스트레스적 행동 반응과 낮은 자신감 등 부정적 정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ashmore & De Haas, 1992). 이와 같은 자료들에 근거하여 법조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생중계를 통한 아동 진술의 확보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위협적일 수 있는 법정 환경과 피의자의 불편한 시선을 직면해야 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갖는 단점을 생중계 방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 배심원들이 공개된 법정에서 제공되는 아동의 진술과 생중계 방식의 아동 진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생중계 방식의 경우 배심원들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아동 진술보다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해야 한다.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5-9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험자와 아동이 흥미로운 게임을 하는 동안 특정 스티커들을 자기 옷에 혹은 다른 사람의 옷에 붙이

도록 하였다. 몇 주 후 연구 참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법정의 실무자들과 일부 배심원들이 착석한 실제 법정과 동일한 곳에서 모의재판을 실시하였다. 아동들은 공개된 법정에서 혹은 CCTV 통해 변호사의 반대신문을 경험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실험자가 ‘유죄’인 그룹의 아동들에게는 발생한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고 실험자가 ‘무죄’인 그룹의 아동들에게는 발생한 사실과 반대인 진술 예를 들어, 스티커가 아동 자신의 옷에 붙었으나 다른 사람의 몸에 붙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연구 결과 배심원들은 CCTV를 통해 본 아동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아동 진술에 더 높은 집중과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rcutt, Goodman, Tobey, Batterman-Faunce, & Thomas, 2001). 그러나 배심원들이 아동의 진술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사건의 판결에 대한 평가에서는 아동이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 오히려 정확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rij, 2008). 공개된 법정에서 아동이 진술할 경우 배심원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준언어적 단서들을 생중계를 통한 경우보다 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그와 같은 단서들의 영향은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주어진 객관적 정보들을 보다 혼란스럽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즉 공개된 법정에서 아동의 진술을 접하는 경우 생중계를 통한 경우보다 아동의 진술 내용에 더 집중하게 함과 동시에 진술 내용 이외에도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지 않은 아동의 행동이나 표정에 배심원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 반영되어 사건의 정확한 판결을 방해할 수 있다(Landstrom, 2008).

요약하면, 법정에서 아동의 진술을 획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생중계 제

도(live link)는 공개된 법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의 불안이나 긴장 수준을 낮추고 따라서 보다 정확한 회상 보고를 가능케 한다는 주장이 국제적으로 동의되고 있다(Hall & Sales, 2008). 국외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이와 같은 학술 연구들이 아동 수사면담의 환경 개선과 신뢰로운 아동 진술 확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제도 정립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 생중계 방식이 아동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외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아동 진술 획득을 위한 생중계 방식의 도입과 그 효용성에 관련된 학술 연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학술 연구자와 현장 실무자의 호혜적 관계 정립의 중요성

앞서 살펴본 국외 사례들과 같이 아동 수사면담의 질적 향상은 다양한 주제의 학술 연구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고 현장에서도 학술 연구의 결과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수사면담을 시행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술 연구들은 피험자의 특성과 실험 환경이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아동의 회상 기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들은 아동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들을 연구자의 연구 가설을 중심으로 통제할 수 있고 따라서 연구 결과 아동의 회상 정도를 수량화된 데이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술 연구에 이용되는 아동의 회상 사건은 실제 아동이 연루된 범죄 사건들과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정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술 연구들도 스트레스, 불안, 공포 등 부정적 정서가 자연스럽게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을(예: 병원에서 면역주사 맞기, 소아 치과 진료 등) 활용하여 아동의 기억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Vandermass, Hess, & Baker-Ward, 1993; Lee, 2011). 이와 같은 연구들이 실험실 연구에 비해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을 수 있으나 아동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과 같은 실제 범죄 사건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들을 여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후 연구자들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보다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예를 들어 아동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불편한 진료 절차(예: VCUG - 배설성요도방광조영술)나 응급실 방문 혹은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를 경험한 아동의 기억을 살펴보았다(Merritt, Ornstein, & Spicker, 1994).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 정서의 사건에 대한 아동 기억의 정확성이 중립적 정서의 사건에 관한 아동 기억의 정확성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vush, Sales, Goldberg, Bahrnick, & Parker, 2004). 이는 결국 성폭력 혹은 신체 학대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실제 범죄 사건들에 대한 아동의 진술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회상 진술과 차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술 연구에서 아동의 기억이 평가되는 사건들은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 정보들이 연구자에 의해 사전에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면담의 경우 아동이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폭력이 의심되는 생식기 장애 혹은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 상해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학술 연구에서 아동의 기억과 아동 수사면담에서 아동의 기억은 질문의 형태와 구성, 아동의 반응 패턴 등의 맥락에서 동일하게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술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의도, 예를 들어 실험자의 신체 접촉 유무와 관련하여 아동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것과 다른 부가적인 면담 도구들(예: 해부학 인형, 인체 해부도, 수사사건과 관련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문을 하는 방법에 있어 아동의 연령에 따른 혹은 아동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에 따른 반응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들은 실제 아동 수사면담시 신체 접촉과 관련된 질문에의 아동 반응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Quas, Davis, Goodman, & Myers, 2007). 또한 학술 연구들은 본격적인 수사면담에 들어가기 이전에 실제로 아동이 사건을 경험하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실 유도 훈련’의 효용성이나 아동이 경험하지 않은 신체 접촉 혹은 성학대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아동의 반응 특성 등 아동 진술의 정확도 예측에 요구되는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Lyon, Malloy, Quas, & Talwar, 2008).

아동 진술과 관련된 학술 연구자들은 아동의 기억 역량에 바탕을 두는 인지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동기적 요인들의 탐색에도 현실적 요인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허락되지 않은 아동의 놀이 활동에 대해 면담자가 질문하는 경우 아동의 반응 특성(예: 금지된 장난감과의 놀이 활동; Talwar & Lee, 2008) 혹은 수사사건의 혐의자가 아동과 혈연관계인 경우 아동의 반응 특성(Talwar, Lee, Bala, & Lindsay, 2004) 등 실제 수

사면담시 아동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탐색에 대한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다년간 아동 수사면담을 실시한 면담 전문가의 의견이 학술 연구에 잘 반영되는 것으로 학술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의 호혜적 교류에 의한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술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대표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아동 증언의 대표 연구들은 대부분 서양의 백인 중산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그러나 실제 수사면담을 받는 아동들은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사회 경제적 수준도 낮은 아동들이 많다. 따라서 아동 증언과 관련된 학술 연구들이 실제 수사면담을 받는 아동의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과 사회 경제적 수준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Eisen, Goodman, Qin, Davis, & Crayton, 2007). 최근 들어, 아동의 개인차(예: 아동의 지능, 언어 능력, 아동의 기질 및 애착 정도,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 Bruck & Melnyk, 2004) 특성들과 아동 진술의 신빙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는 이유도 수사면담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에게 학술 연구의 결과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연구자들은 아동의 회상 기억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 인출을 방해하는 아동의 인지적, 사회환경적, 동기적 요인들에 관한 학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실무자들은 실제 아동이 연루된 수사사건들의 특성들과 수사면담을 받는 아동들의 개별 특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학술 연구자들에게 상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학술 연구자와 현장 실무

자의 이와 같은 상호 호혜적 관계의 구축은 아동 친환경적 수사면담 구성과 신뢰로운 아동 진술의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 전체 논의 및 제언

본 논문은 NICHD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의 효용성과 법정의 CCTV 활용에 대한 국외의 학술 연구들과 현장의 자료 조사들을 토대로 아동 증언 분야에서 학술 연구자와 현장 실무자의 상호 호혜적 관계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하였다.

아동 증언 분야의 학술 연구들은 현장 실무자들의 경험에 의한 조언과 제안들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수준과 정신적 외상이 아동의 회상 기억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수사면담 질문의 형태 등 실제 아동 수사면담의 맥락과 수사사건의 본질적 특성들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후속 연구 주제로 아동 진술 역량과 관련하여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특정 발달 장애(예: 지적장애, 행동 장애, 의사소통 장애)를 지닌 아동의 진술 역량 그리고 아동 개인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특성들이 고려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1년도에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 개선과 아동 친환경적 수사면담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폭력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또한 작년(2011년) 한국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아동, 장애인의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 19명을 국내에 처음으로 배출하

였다. 이 전문 인력들은 아동이 연루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 계획의 수립에 조언을 제공하고 피해자 조사 과정에 배석해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권창국, 2009).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제도들은 법정 아동 진술과 관련하여 국외의 연구들의 결과나 법률적 제도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아동 수사면담의 환경 조성과 관련 법률적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술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는 호혜적 관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아동 학대나 이혼, 성 폭력 등 범죄 사건들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아동이 직접 증언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적인 수사면담의 구성과 실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김시업, 2011). 이와 같은 현실적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아동 진술의 획득을 위한 국외의 법률적 절차들과 아동 수사면담프로토콜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적 방안들의 모색이 필요하다. 최상의 수사면담 지침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다. 따라서 학술 연구자들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아동 수사면담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학문적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실무자들의 현실적 난제들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 사항들을 경험적 연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실무자들은 아동 진술의 역량과 한계, 바람직한 아동 수사면담의 구성과 아동 친환경적 면담 환경에 대한 학술 연구들의 결과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궁극

적으로 아동의 진술 오류를 최소화하고 획득된 아동 진술이 사건 해결에 실증적인 증거 자료로서 법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창국 (2009).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진술의 신뢰성 판단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형사정책*, 21(2), 63-94.
- 김시엽 (2011). 인지면담. 학지사
- Banaji, M. R., & Crowder, R. G. (1989). The bankruptcy of everyday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44, 1185-1193.
- Bjorklund, D. F. (2005). *Children's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and individual differences* (4th ed.). Belmont, CA: Wadsworth.
- Bottoms, B., L, Goodman, G. S., Schwartz-Kenney, B. M., & Thomas, S. N. (2002). Understanding children's use of secrecy in the context of eyewitness reports. *Law and Human Behavior*, 26, 285-314.
- Brigham, J. C. (1999). What is forensic psychology, anyway?. *Law & Human Behavior*, 23, 273-298.
- Brenneis, C. B (1997), Final report of APA working group on investigation of memories of childhood abuse: A critical commentary. *Psychoanalytic Psychology*, 14(4), 531-547.
- Bruck, M., & Melnyk, L. (2004).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Suggestibility: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8, 2-48.
- Cashmore, J. (2002). 'Innovative procedures for child witnesses' in H. Westcott, G. M., Davies & R., Bull. (Eds.), *Children's testimony: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forensic practice*. John Wiley & Sons, Chichester.
- Cashmore, J., & de Haas, N. (1992). *The use of closed circuit television for child witnesses in the ACT*. Sydney: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 Ceci, S. J., Huffman, M. L. C., Smith, E., & Loftus, E. F. (1994a). Repeatedly thinking about a non-event: Source misattributions among preschoolers. *Consciousness & Cogni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3, 388-407.
- Ceci, S. J., Loftus, E. F., Leichtman, M. D., & Bruck, M. (1994b). The possible role of source misattribution in the creation of false beliefs among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Hypnosis*, 42, 304-320.
- Cordon, I. M., Saetermoe, C. L., & Goodman, G. S. (2005). Facilitating Children's Accurate Responses: Conversational Rules and Interview Style.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9, 249-266.
- Davies, G. (1999). 'The impact of television on the presentation and reception of children's testimon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2, 3(4), 241-256.
- Davis, A. (1996). 'Risk Work and Mental Health', in H. Kemshall & J. Pritchard (Eds.) *Good Practice in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London: Jessica Kingsley.
- Davies, G. (1994). Editorial Live Links: Understanding the message of the child medium.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5, 225-227.

- Davies, G., & Noon, E. (1993). Video Links: their impact on child witness trials. (Occasional paper No 20). *Division of Criminological and Legal Psychology*.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 Davies, G., & Noon, E. (1991). *An evaluation of the live link for child witnesses*. Home Office report.
- Eisen, M. L., Goodman, G. S., Qin, J. Davis, S., & Crayton, J. (2007). Maltreated children's memory: Accuracy, suggestibility, and psychopat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43, 1275-1294.
- Fivush, R., Sales, J. M., Goldberg, A., Bahrck, L., & Parker, J. (2004). Weathering the storm: Children's long-term recall of Hurricane Andrew. *Memory*, 12(1), 104-118.
- Flin, R. H., Bull, R., Boon, J., & Knox, A. (1990). *Child witnesses in Scottish criminal prosecutions*. Report to the Scottish Home and Health Department, Glasgow, Glasgow College of Technology.
- Garven, S., Wood, J. M., Malpass, R. S., & Shaw, J. S. (1998). More than suggestion: The effects of interviewing techniques from the McMartin preschool cas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 347-359.
- Gathercole, S. E., & Collins, A. F. (1992). Everyday memory research and its application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6, 461-465.
- Goodman, G. S., Hirschman, J. E., Hepps, D., & Rudy, L. (1991). Children's memory for stressful events. *Merrill-Palmer Quarterly*, 37, 109-158.
- Goodman, G. S., Tobey, A. E., Batterman-Faunce, J. M., Orcutt, H., Thomas, S., Shapiro, C., & Sachsenmaier, T. (1998). Face-to-face confrontation: Effects of closed-circuit technology on children's eyewitness testimony and jurors' decisions. *Law and Human Behavior*, 22, 165-203.
- Groark, C. J., & McCall, R. B. (2005). Integrating developmental scholarship into practice and policy. In M. H. Bornstein & M. E. Lamb (Eds.), *Developmental psychology: An advanced textbook, 5th Edition* (pp.570-60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ll, S., & Sales, B. (2008). *Courtroom modifications for child witnesses*. Washington, DC: APA.
- Hamlyn, B., Phelps, A., Turtle, J., & Satter, G. (2004). *Are special measures working? Evidence from surveys of vulnerable and intimidated witnesses*. London: Home Office.
- Huffman, M. L. C., Crossman, A. M., & Ceci, S. J. (1997). "Are false memories permanent?": An investigation of the long-term effects of source misattribu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6, 482-490.
- Katz, C., & Hershkowitz, I. (2010). The effect of drawing on the richness of accounts provided by alleged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Child Maltreatment*, 15, 171-179.
- Lamb, M. E., Hershkowitz, I., Orbach, Y., & Esplin, P. W. (2008). *Tell Me What Happened: Structured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 Victims and Witnesses*. Hoboken, NJ: Wiley.
- Lamb, M. E., Orbach, Y., Sternberg, K. J., Aldridge, J., Pearson, S., Stewart, H. L., Esplin, P. W., & Bowler, L. (2009). Use of a structured investigative protocol enhances the



- quality of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alleged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in Britai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3, 449-467.
- Lamb, M. E., Orbach, Y., Warren, A. R., Esplin, P. W., & Hershkowitz, I. (2007). Enhancing performance: Factors affecting the informativeness of young witnesses. In M. P. Toglia, J. D. Read, D. F. Ross & R. C. Lindsay (Eds.), *The handbook of eyewitness psychology, volume: Memory for events* (pp. 401-42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mb, M. E., Sternberg, K. J., Orbach, Y., Esplin, P. W., & Mitchell, S. (2002). Is ongoing feedback necessary to maintain the quality of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allegedly abused children?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6, 35-41.
- Lamb, M. E., Sternberg, K. J., Orbach, Y., Esplin, P. W., Stewart, H., & Mitchell, S. (2003). Age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open-ended invitations in the course of forensic interview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 926-934.
- Landstrom, S. (2008). *CCTV, live, and videotapes: How presentation mode affects the evaluation of witnes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otenborg, Sweden.
- Lee, S. (2011). *Children's Memories of a Stressful Dental Procedure: Effects of Stress and Individual Differences on Remembering*.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Leichtman, M. D., & Ceci, S. J. (1995). "The Effects of Stereotypes and Suggestions on Preschoolers' Reports." *Developmental Psychology*, 31(4), 568-578.
- Loftus, E. F. (1993). The reality of repressed memories. *American Psychologist*, 48, 518-537.
- Lyon, T. D. (1999). The new wave of suggestibility research: A critique. *Cornell Law Review*, 84, 1004-1087.
- Lyon, T. D., Malloy, L. C., Quas, J. A., & Talwar, V. (2008). Coaching, truth induction, and young maltreated children's false allegations and false denials. *Child Development*, 79, 914-929.
- Malloy, L. C., Lyon, T. D., & Quas, J. A. (2007). Filial dependency and recantation of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6, 162-170.
- McCall, R. B., & Green, B. L. (2004). Beyond the methodological gold standards of behavioral research: Consider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SRCD Social Policy Report*, 18(2), 3-19.
- Melnik, L., Crossman, A. M., & Scullin, M. H. (2007). The suggestibility of children's memory. In M. P. Toglia, J. D. Read, D. F. Ross, & R. C. L. Lindsay (Eds.), *Handbook of eyewitness psychology, Vol 1.: Memory for events* (p.401-427). Mahwah NJ: Erlbaum.
- Merritt, K. A., Ornstein, P. A., & Spicker, B. (1994). Children's memory for a salient medical procedure: Implications for testimony. *Pediatrics*, 94(1), 17-23.
- Murray, K. (1995). *Live television link: An evaluation of its use by child witnesses in Scottish criminal trials*. Scottish Office: Central Research Unit.
- Nathanson, R., & Saywitz, K. J. (2003). The

- effects of the courtroom context on children's memory and anxiety. *Journal of Psychiatry and the Law*, 31, 67-98.
- Orbach, Y., Hershkowitz, I., Lamb, M. E., Esplin, P. W., & Horowitz, D. (2000). Assessing the value of structured protocols for forensic interviews of alleged child abuse victims. *Child Abuse and Neglect*, 24, 733-752.
- Orcutt, H. K., Goodman, G. S., Tobey, A. E., Batterman-Faunce, J. M., & Thomas, S. (2001). Detecting deception in children's testimony: Fact finders' abilities to reach the truth in open court and closed-circuit trials. *Law and Human Behavior*, 25(4), 339-372.
- Pezdek, K., & Hodge, D. (1999). Planting false childhood memories in children: The role of event plausibility. *Child Development*, 70, 887-895.
- Quas, J. A., Bauer, A. B., & Boyce, W. T. B. (2004). Physiological reactivity, social support, and memory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5, 797-81.
- Quas, J. A., Davis, E., Goodman, G. S., & Myers, J. E. B. (2007). Repeated questions, deception, and children's true and false reports of body touch. *Child Maltreatment*, 12, 60-67.
- Quas, J. A., Goodman, G. S., Bidrose, S., Pipe, M.-E., Craw, S., & Ablin, D. S. (1999). Emotion and memory: Children's long-term remembering, forgetting, and suggest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2(4), 235-270.
- Quas, J. A., Goodman, G. S., Ghetti, S., Alexander, K., Edelstein, R., Redlich, A. D., Cordon, I. M., & Jones, D. P. H. (2005). Childhood victims of sexual assault: Long-term outcomes after testifying in criminal cour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 Serial No. 280.
- Roberts, K. P., & Powell, M. B. (2001). Describing individual incidents of sexual abuse: A review of research on the effects of multiple sources of information on children's reports. *Child Abuse & Neglect*, 25, 1643-1659.
- Saywitz, K., & Nathanson, R. (1993). Children's testimony and their perceptions of stress in and out of the courtroom. *Child Abuse & Neglect*, 17, 613-622.
- Spencer, J. R., & Flin, R. C. (1993). *The Evidence of Children: the Law and the Psychology*, 2nd edit. London UK: Blackstone Press.
- Talwar, V., & Lee, K. (2008). Socio-cognitive correlates of children's lying behavior: Conceptual understanding of lying, executive functioning, and false beliefs. *Child Development*, 79, 866-881.
- Talwar, V., Lee, K., Bala, N., & Lindsay, R. C. L. (2004). Children's lie-telling to conceal a parent's transgression: Legal implications. *Law & Human Behavior*, 28, 411-435.
- Talwar, V., Lee, K., Bala, N., & Lindsay, R. C. L. (2002). Children's conceptual knowledge of lying and its relation to their actual behaviors: Implications for court competence examination. *Law and Human Behavior*, 26, 395-415.
- Vandermass, M. O., Hess, T. M., & Baker-Ward, L. (1993). Does anxiety affect children's reports of memory for a stressful even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7, 109-127.
- Vrij, A. (2008). *Detecting lies and deceit: Pitfalls and*

- opportunities*. Chichester. John Wiley and Sons.
- Waterman, A. H., Blades, M., & Spencer, C. P. (2004). Indicating when you do not know the answer: The effect of question format and interviewer knowledge on children's 'don't know' respons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35-148.
- Zigler, E. F., & Finn-Stevenson, M. (1999).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In M. H. Bornstein & M. E. Lamb (Eds.), *Developmental psychology: An advanced textbook (4th ed.)* (pp. 555-598). Mahwah, NJ: Earlbaum.
- 1차원고접수 : 2012. 3. 1.  
수정원고접수 : 2012. 5. 23.  
최종게재결정 : 2012. 8. 20.

## **Consideration of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the Context of Children's Testimony**

**Seungjin Le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There is much to be learned from examining the successes and challenges of the past from both basic and applied researches in the field of children's testimony and they have contributed to advancements for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children's reports about their past experiences. To develop good practices of investigative interview in court, state-of-the-art empirical research findings should reach those who practice in the field and vice versa. There were, however, few ideas of the ways in which building a constructiv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the context of children's testimony in Korea and the relationship should be supportive, respectful, and open to accomplish successful outcomes in each field. Thus, the goals of this paper were to organize what we currently know about the status of both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by examining the abroad literature through focused on children's testimony and ultimately, the critical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was discussed in depth.

*Key words* : empirical research, practical practices, NICHD protocol, CCTV, children's testimony